

미숙한 국내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에 전력

심재곤 /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하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지난 7월 19일 수도권 매립지의 중합환경연구단지 준공을 기념하여 '자원순환타임캡슐'을 매설했다.

매설된 타임 캡슐 외부에는 무분별한 자원 낭비의 상징인 일회용 종이컵·포장용기·비닐봉투·접시 등 25종의 각종 일회용품을 따로 매설해 우리 세대의 과소비와 자원낭비에 대한 자성의 계기를 마련 했다.

심 사장은 "땅속에서도 반영구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스티로폼, 컵라면 용기, 합성피혁, 합성고무제품 등 25종의 난분해성 폐기물을 매설하여 1백년이 지난 후에도 분해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폐기물의 실상을 후손들이 확인케 함으로써 선대와 후대의 폐기물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구환경보전의 노력이 지속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사장은 경제 기획원 예산실을 거쳐 환경처 과장, 수질보전국장, 공보관, 폐기물자원국장, 상하수도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후



2001년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렇듯 줄곧 환경과 함께 해온 심 사장은 환경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2001년 7월부터는 공사 내에 포장 실험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포장재의 재질 분석과 폐비닐 및 플라스틱과 폐유리병 처리시설 등 자체 재활용 처리시설의 재활용 제품 품질관리와 공정 개선을 위한 시험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 사장은 "앞으로 분리배출 표시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특히 포장재의 성분분석 기능과 난분해성 포장재질인 합성수지류 포장용기 재활용 제품의 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포장재와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특성화 된 실험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사장은 현 포장재 사용이나 재활용 문제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정 운영을 통한 경제적인 동기부여, 과대포장단속업무와

같은 행정지도와 시민단체의 여론 형성을 통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제고,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사장은 “정부의 각종 통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매년 줄어들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 되고 있으나 포장 폐기물만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한번 쓰여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코팅, 라미네이팅 포장지와 복합재질로 제작된 난분해성 포장지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각종 폐기물처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포장재 사용은 포장의 목적 즉 제품의 보호, 보존, 구매정보제공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한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것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과대포장억제, 난분해성 포장재질의 사용규제 등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을 통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복잡한 현대의 자유경제 구조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가들의 의식과 시민들의 구매 패턴이 친환경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앞으로 재활용 순환과정 전 단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최우선의 과제로 꼽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미숙한 단계에 있는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집행 업무에 치중된 기능을 탈피하여 재활용 정책 및 제도 지원 기능을 수행,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핵심 역량 위주의 효율적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심 사장은 말했다.

심 사장은 이러한 공사의 활동과 함께 포장업계에서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토록 하고, 정부의 과대포장 억제정책 강화로 원가 대비 포장비용이 상승하여 기업에서도 가급적 과대포장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업의 친환경적으로의 의식 변화”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 대상 상품의 확대 시행 등 제도적인 노력과 아울러 국민 소비의식의 친환경적으로의 변화유도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 문제 해결의 한 일환으로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또한 그간의 know-how를 바탕으로 재활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힘써 나갈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보며 이를 이끌어 나갈 심재곤 사장에게도 주목해 본다. ☐

권해진 기자